

#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ception of Inequality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 Households

백승주(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 구성, 가구 소득 등 외재적·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의사결정 주체가 갖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제약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 행위를 논의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개인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복지패널 2005~2017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수준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母)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의 동태적 변화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母)의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변화가 보다 평등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중학교 이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절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 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교육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의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는 서열화 된 대학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제적 성과가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특히 대학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에 대한 강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의 문제, 노동 시장의 문제, 더 나아가 가구 경제가 지는 부담의 문제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교육을 매개로한 계층 이동의 고착화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등장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있어 “난제의 난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여론조사(2018)에 따르면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학부모)들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으며(전체 응답자의 26.6%),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23.7%에 달해 사회적 불안감과 개인적 불안감이 자녀의 사교육의 원인에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령기 자녀가 사교육을 경험하는 이유는 성적부진, 개인적 교육 욕구, 가구 소득의 제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구 내에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포함한 소비항목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주체가 부모(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복합적인 불안감이 사교육비 지출 행위에 기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미시적 수준에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식별해내고 이러한 요인들이 사교육지 지출 행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초점 역시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개인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거시적 경제구조의 하나로 사회적 불평등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은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 위험(income risk)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 기대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cker, 2014, 금현섭·백승주, 2014)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고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수준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측케 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탐색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표성이 있는 조사 자료(한국복지패널)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규모와 변화 양태를 추적하고,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과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선행연구

### 1.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선행연구

한 가구에 있어서 소비 지출액의 수준은 내적으로는 가구 구성의 양태, 외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 수준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 하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더욱이 가구와 개인의 소비행태는 소득 수준과 달리 실제 향유하고 있는 재화의 규모와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구와 개인의 후생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박기백, 2017; 김대일, 2015) 이러한 맥락에서 가구내 지출 양태를 파악하고, 지출(혹은 각 지출항목) 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별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다양한 지출 항목 중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교육을 매개로 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건강한 계층이동의 매개체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대학교육이 사회적 보상과 연계됨으로써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박경호 외, 2017) 더 나아가 부모의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기회의 격차로 작용함으로써 자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교육기회 격차→대학교육 격차→사회적 보상 격차로 이어지는 연쇄과정에 대한 우려는 결국 “교육기회”를 반영하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된다.

사교육비의 지출과 관련된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양태로 진행되고 있는 데, 첫째는 가구내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확인하고 가구 내에서 사교육비 지출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식별하려는 탐색적인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내 필수재화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보이고 있어 사교육비가 갖고 있는 가구의 부담을 제시하거나(이승신,

2003), 가구수준에서의 소득수준 및 부모의 교육수준, 개인수준에서의 개인의 성적과 교육욕구, 국가수준에의 대입정책, EBS 수능연계 등과 같은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들이다.(주인숙·양세정, 1997; 박미희·여정성, 2000; 정순희, 2000; 이성립, 2002)

한편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 및 불평등 양태와 그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계층 대물림 현상이 교육(특히 대학교육)을 매개로 고착화 되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평등 관점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교육비 지출행태를 통해 교육격차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백승주, 2018; 김희삼, 2009; 김희삼·이삼호, 2008) 예를 들어 김혜자(2013)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및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을 분석한바 있다. 분석결과 소득분위에 따른 교육소비 및 학원소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비 지출의 구조가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최근 백승주(2018)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내 사교육비 지출액의 불평등 수준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전반적인 소비불평등 수준은 연도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교육비 지출의 불평등 수준도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절대적인 금액은 줄지 않고 상향평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교육비 지출

좁게는 가구 내 교육비 지출의 양태와 원인, 넓게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와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들이 경험하고 체감하는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은 여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줄어들지 않는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가구 내 소비 지출 규모의 결정은 가구 내 구성원의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들이 가구 소득, 가구 구성형태(예를 들어 가구원수, 자녀의 수 등)와 같이 외재적 예산 제약 하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가구 내 소비 지출의 규모와 양태는 가구 내 의사결정 주체들의 내재적인 의도나 인식 수준과 같은 내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실상 가구 내 의사결정 주체들의 갖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인식 요인들이 소비지출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 요인이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위험(risk)에 대한 인지이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소득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구나 저축을 증가시키며, 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의 불확실성은 위험기피적인 개인은 현재소비를 증가시키는 등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가구 내 소비 지출행태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Leland, 1968; Sandmo, 1970; 최희갑, 2003, 재인용)

이처럼 가구 내 의사결정 주체들이 갖고 있는 소득 불확실성이 가구 내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 내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은 소득불안정성과 함께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거나 당면하는 경제적 손실(loss) 또는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의미하는 소득위험(income risk)의 구성요소로 여겨진다.(Hacker, 2014) 특히 소득불평등은 특정 시점에서의 사회 구성원 간 소득격차와 이로 인한 후

생수준의 위약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계층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장기적으로는 계층 고착에 따른 미래 불안을 초래한다.(금현섭·백승주, 2014)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양태는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anxiety)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가구 내 소비 지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가구 구성원이 향유하는 교육 기회 수준을 의미함과 동시에 미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투자(investment)로도 이해된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에서의 학력은 개개인의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을 예측하고, 사회적 지위 확보를 통한 계층이동의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으며,(박경호 외, 2017)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사회적 지위추구행동(status seeking behavior)의 하나로 볼 수 있다.(차문정·이희태, 2017) 따라서 학력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회의 계층 구조 속에서 미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위 추구의 매개인 교육비 지출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러한 양태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비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제3절 분석자료 및 방법

#### 1. 분석자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 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의 2005~2017년까지의 13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복지패널은 우리 사회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인구 집단별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패널 조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이 가구 내 소비지출의 주요 의사 결정자인 가구주와 배우자(통상적으로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가 가구 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가구 내 소비 지출에 대한 정보 모두가 요구되는 데, 복지패널의 경우 부가 조사를 통해 3년에 한번 씩 일부 가구에 대해 “복지인식” 설문을 진행하고 있어 양자의 정보를 모두 획득할 수 있다. 둘째는 가구 내 사교육비 지출은 사교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능력, 요구, 연령(학교급)과 같은 개인의 특징과 가구의 소득 수준,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등의 가구의 특징에 따라 그 지출규모와 양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의 양태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구 단위가 아닌 지출 단위(자녀 개개인)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선행연구 대부분이 가구 단위 지출규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평균적인 사교육비 규모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패널의 경우 가구 설문조사의 지출항목에서 각 가구원 번호(개인식별번호)와 함께 가구원 각각에서 소요되는 사교육비 지출액을 조사하고 있어 개인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복지패널의 경우 만 0세부터 만 17세 이하(통상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의 자녀에게 소요되는 사교육비만은 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의 대상을 1차적으로 만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들로 한정하였으며,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복지인식 조사의 대상 가구 중 만 17세 미만 학령기 자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의 〈표 1〉에 연도별 분석대상으로 제시하였다.

〈표 1〉 연도별 분석 대상

(단위: 가구, 명)

연도 \ 구분	전체가구수	전체가구원수	복지의식 응답가구수	복지의식 응답가구의 가구원수	복지의식 응답가구의 가구원중 17세이하청소년의수
2005	7,072	18,856	-	-	-
2006	6,580	17,478	1,000	2,672	579
2007	6,314	16,613	-	-	-
2008	6,207	16,255	-	-	-
2009	6,034	15,625	1,295	3,417	728
2010	5,735	14,696	-	-	-
2011	7,532	18,622	-	-	-
2012	7,312	17,984	2,219	5,412	955
2013	7,047	17,134	-	-	-
2014	6,914	16,664	-	-	-
2015	6,723	15,989	1,944	4,566	735
2016	6,581	15,422	-	-	-
2017	6,474	14,923	-	-	-
합계	86,525	216,261	6,458	16,067	2,99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13차』 원자료.

## 2. 주요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교육비 지출 관련 변수 이다. 먼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복지인식 설문조사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1.매우평등하다~7.매우불평등하다, 7점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액은 가구 설문에 포함된 개인별 보육 및 교육비의 총액을 활용하였다. 복지패널의 사교육비 지출항목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0세부터 만17세까지의 자녀에 대해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에 사용한 가구원 별 총액을 묻고 있다. 다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개인 설문이 아닌 가구 설문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가구자료에 포함된 개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사교육비 지출 자료를 가구원 단위의 패널자료로 재구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의 규모나 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소득, 총 가구원수,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특히 가구 소득은 가구 내 소비 지출 항목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 제약 선으로, 선행연구들에서 가구의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만 17세 이하 자녀의 개인별 사교육비 지출액인 만큼 개인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자녀가 아니라 가구(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분석에 고려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의 자료를 활용하는 만큼 모든 소득과 지출액의 연도별 비교를 위해 2010년도 기준(100)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sup>5)</sup>

5) 한국은행 연도별 GDP 디플레이터

〈표 2〉 주요 변수의 측정과 기술통계 (2015년도 만 17세 이하 및 속한 가구 N=735)

연도	구분	변수의 측정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사교육비 지출액 (연간, 만원)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사용한 총 비용 (조사에서는 월간으로 조사되었으나 연간(X12) 금액을 사용)	266.26	285.11	0	2251.407
	연령 (만나이)	연령(만나이)	10.10	4.84	0	17
	부(가주)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평등하다~7.매우불평등하다)	5.05	1.28	1	7
	모(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5.03	1.21	2	7
	가구 가처분 소득(연간, 만원)	가구 연간 가처분 소득 총액	6091.22	15641.23	0	423246.7
	총 가구원수	가구내 총 인원수	4.73	1.44	2	11
	부(가주)의 교육수준	(1.미취학~9.박사)	5.83	1.24	2	9
	모(가주)의 교육수준		5.18	2.01	1	9
	부(가주)의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임금근로자의비율)	실제 분석에서는 (1.상용직 임금근로자~9.비경제활동인구)를 가변수로 사용	59.9%			
	모(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임금근로자의비율)		26.0%			

한편 부모(가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만 17세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와 성장곡선모형(Growth-curve model)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성장곡선 모형을 분석에 활용한 것은 사교육비 지출 양태가 연령에 따른 성장 함수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장곡선 모형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정 요인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는 데 활용되는 모형으로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의 궤적을 추정하고, 궤적의 개인차를 모형화하는 분석기법이다. 특히 패널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성장 곡선 모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백승주, 2019, 재인용; 최현석·박철용, 2018; Lee & Kang, 2013; Duncan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연령(학교급)에 따라 일정한 궤적을 형성하며 변화하는 지에 대한 동태적인 양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의 연령에 따른 궤적이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지를 성장곡선 모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sup>6)</sup>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디플레이터	90.9	93.6	96.9	100	101.6	102.6	103.5	104.1	106.6	108.6	111.2

6) 특히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연령에 따른 여러 고차항을 포함한 성장곡선 모형을 통해 사교육지 지출비용의 궤적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여타 변수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제4절 분석결과

## 1. 연도별·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복지패널 가구 조사에서 사교육비 지출액의 조사 대상인 만 17세 이하의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연도별·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를 <표 3> 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적인 수준에서 자녀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은 270만원 수준이었으며, 만 13세(중학교 1학년)의 경우 연간 344만원, 만 16세(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연간 295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조사 대상 학생들의 월평균적인 사교육비는 27만 1천원(연간환산 325만원)으로 복지패널의 초중고(고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 학생들의 평균적인 사교육비(연간 309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lt;표 3&gt; 연도별·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만 17세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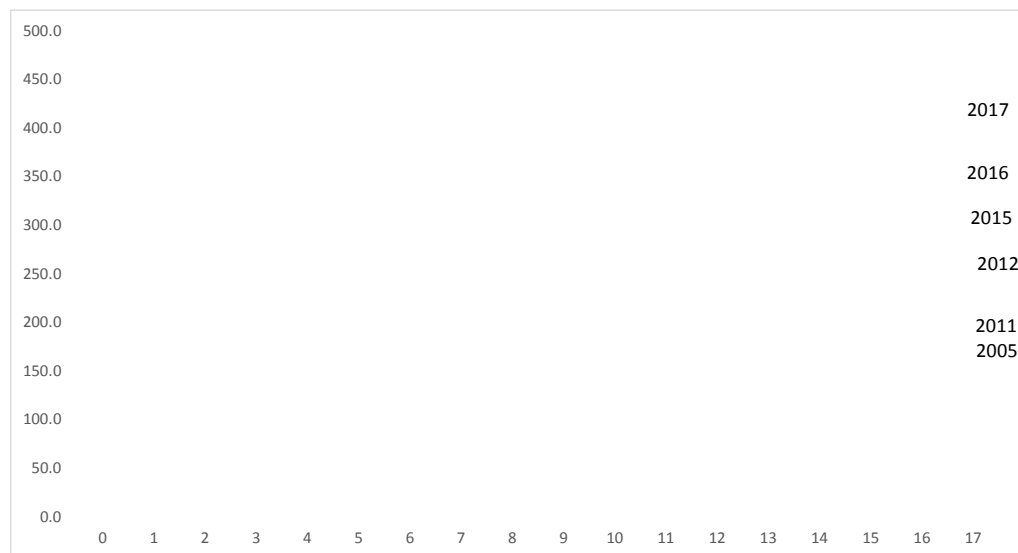
(단위: 연간, 만원)

연도 만나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0	78.1	33.1	39.9	44.7	120.2	39.5	12.0	10.4	57.0	69.4	9.4	54.8	112.8	50.2
1	82.1	79.9	106.5	79.5	63.8	60.4	101.6	49.8	95.5	67.2	33.9	74.1	69.1	75.6
2	163.5	93.4	131.2	139.5	150.6	108.7	125.8	83.9	69.1	84.0	61.7	78.8	110.2	110.1
3	210.8	181.2	191.0	236.8	209.7	211.2	176.8	116.8	119.5	104.3	155.7	125.4	126.2	166.2
4	291.3	240.8	260.1	299.7	292.6	329.0	258.1	263.5	230.9	207.7	187.3	213.0	228.9	252.2
5	299.6	291.4	315.1	328.0	339.8	319.8	325.6	327.2	280.0	260.1	248.3	238.0	231.8	294.4
6	287.7	292.1	279.4	316.7	334.6	336.8	326.4	310.5	293.9	280.1	289.4	271.1	278.2	299.3
7	<b>256.2</b>	<b>256.4</b>	<b>283.7</b>	<b>264.6</b>	<b>272.4</b>	<b>303.8</b>	<b>273.6</b>	<b>258.9</b>	<b>286.9</b>	<b>267.8</b>	<b>280.6</b>	<b>276.3</b>	<b>260.7</b>	<b>272.1</b>
8	286.6	290.1	292.4	333.7	281.7	252.1	297.8	299.3	299.6	282.8	284.3	303.1	314.0	294.3
9	291.6	282.7	320.7	313.3	339.5	286.3	286.8	299.0	321.4	323.5	306.7	308.6	310.8	306.4
10	285.7	288.7	288.4	328.7	316.1	319.0	315.9	293.4	343.2	325.1	328.5	324.4	316.6	310.9
11	290.5	307.0	297.4	307.7	315.2	331.3	318.5	319.5	303.4	341.7	319.2	359.0	334.6	315.7
12	315.8	298.1	333.6	306.7	320.3	372.5	323.0	325.7	336.8	327.6	356.4	341.4	404.7	332.6
13	<b>322.7</b>	<b>368.1</b>	<b>312.4</b>	<b>334.0</b>	<b>296.3</b>	<b>291.6</b>	<b>375.6</b>	<b>331.9</b>	<b>387.4</b>	<b>330.3</b>	<b>338.9</b>	<b>426.2</b>	<b>377.0</b>	<b>344.8</b>
14	317.0	332.1	363.5	298.0	307.5	330.0	270.7	341.5	330.6	381.7	311.6	348.2	445.6	337.1
15	242.7	335.7	336.4	367.7	286.0	272.4	309.2	276.1	305.4	343.7	383.4	338.6	378.4	324.4
16	<b>251.5</b>	<b>278.5</b>	<b>278.7</b>	<b>283.0</b>	<b>284.3</b>	<b>245.3</b>	<b>235.5</b>	<b>277.7</b>	<b>278.1</b>	<b>288.6</b>	<b>382.4</b>	<b>425.1</b>	<b>330.4</b>	<b>295.5</b>
17	185.0	288.8	251.8	257.6	253.3	248.0	192.9	257.8	242.5	271.6	320.0	366.0	404.9	270.7
평균	<b>258.8</b>	<b>267.0</b>	<b>274.0</b>	<b>283.6</b>	<b>276.8</b>	<b>274.3</b>	<b>263.3</b>	<b>262.1</b>	<b>264.2</b>	<b>264.0</b>	<b>272.3</b>	<b>282.2</b>	<b>292.1</b>	<b>271.6</b>

한편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전반적인 변화 양태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는 비선형적인(non-linear)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초등학교 입학시(만 7세)까지 사교육비(보육비 포함)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약간의 정체기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이후의 개인별 사교육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세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중학교 1학년(만 13세) 이후를 기점으로 사교육비 지출액의 연도별 차이가 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학교 1학년 이후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5년 이후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점차 증

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가구내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이 중·고등학교 자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만 17세이하)



## 2.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

한편 가구 내 가구주 및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복지패널 내의 부가 조사에 포함된 내용으로 매년 조사되지 않고, 3년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사 연도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도의 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3,092명중 보통(4점) 이상, 즉 불평등한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5점~7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6.8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연도마다 매년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불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 (가구주 및 배우자)

(단위: 7점척도, %)

불평등 인식	연도		2006		2009		2012		2015		계	
			N	(%)	N	(%)	N	(%)	N	(%)	N	(%)
(1) 매우 평등하다			16	0.96	19	0.90	26	0.73	24	0.78	85	0.81
(2)			29	1.73	50	2.37	64	1.79	99	3.20	242	2.32
(3)			85	5.08	94	4.46	160	4.47	295	9.54	634	6.07
(4)			251	14.99	314	14.89	614	17.17	607	19.63	1,786	17.09
(5)			461	27.54	653	30.96	1,097	30.67	975	31.53	3,186	30.48
(6)			444	26.52	652	30.92	1,033	28.88	741	23.97	2,870	27.46
(7) 매우 불평등하다			388	23.18	327	15.50	583	16.30	351	11.35	1,649	15.78
계			1,674	100	2,109	100	3,577	100	3,092	100	10,452	100.00

다만 연도별 변화 양태에서 특징적인 점은 불평등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조사의 경우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77.24%였던 반면에



2015년 조사에서는 66.85%로 감소하고 있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sup>7)</sup>

[그림 2] 불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가구주 및 배우자)



또한 <표 5>에는 복지인식 조사에 응답한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특히 가구내의 소비 지출의 규모와 양태는 가구 내 의사결정 참여자의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도별로 양자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구주 및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7점 척도, %)

연도	가구주			배우자			계			차이 (TTEST)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N)	
2006	5.43	1.29	1,000	5.37	1.32	674	5.41	1.30	1,674	0.13**
2009	5.30	1.30	1,304	5.28	1.22	820	5.29	1.27	2,124	0.00
2012	5.29	1.24	2,219	5.22	1.19	1,358	5.26	1.22	3,577	0.05
2015	5.06	1.25	1,945	5.01	1.19	1,149	5.04	1.22	3,094	0.03
계	5.24	1.27	6,468	5.19	1.22	4,001	5.22	1.25	10,469	

7)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이유에 있어 패널 조사의 특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지패널 조사가 연도별로 동일한 가구를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패널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구의 경우 패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패널 탈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구만 남아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개선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인식 조사의 응답가구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확인한 결과 평등한 편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은 4,809만원이었던 반면, 불평등한 편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은 4,980만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 3.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의 평균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앞서 <표 5>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표 6>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규모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불평등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3점 이하) 부(가구주)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의 평균은 228만원이었던 반면 모(배우자)의 경우 275만원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불평등 하다고 생각하는(5점이상) 부(가구주)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의 평균은 231만원이었던 반면 모(배우자)의 경우 257만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6> 가구주 및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 (만 17세이하)  
(단위: 연간, 만원, 명)

불평등 인식	구분	가구주			배우자		
		평균	(SD)	(N)	평균	(SD)	(N)
(1) 매우 평등하다		196.29	199.38	27	295.32	266.07	9
(2)		272.69	391.55	59	279.70	268.59	53
(3)		217.34	243.88	155	252.43	239.78	167
(4)		266.05	296.25	504	276.46	258.07	492
(5)		255.43	272.18	911	269.02	284.87	966
(6)		242.80	269.29	834	273.63	319.35	681
(7) 매우 불평등하다		196.50	208.30	507	229.26	235.02	400
계		241.57	267.71	2,997	265.02	280.01	2,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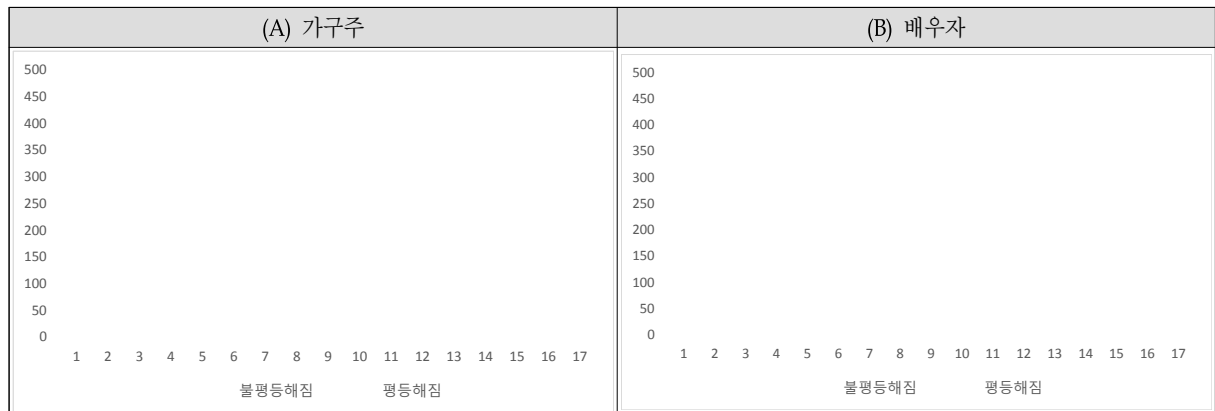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이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표 7>과 <그림 3>을 통해 제시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지출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전 연령대에 있어서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이후의 학령기 자녀들에 있어서의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모(母)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불평등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만 13세(중학교)이상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지 지출액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표 7> 가구주 및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 (만 17세이하)  
(단위: 연간, 만원, 명)

연령	구분	가구주				배우자			
		동일함	불평등해짐	평등해짐	계	동일함	불평등해짐	평등해짐	계
1		11.04	43.39	58.22	47.88	11.15	1.67	61.85	47.88
2		63.83	46.93	78.78	71.11	76.50	35.35	79.43	71.11
3		126.74	112.40	139.53	133.74	110.13	133.03	139.85	133.74
4		238.11	280.24	235.94	243.92	283.57	300.61	220.20	243.92
5		333.57	343.31	286.58	305.42	353.79	361.15	278.67	305.42

연령	구분	가구주				배우자			
		동일함	불평등해짐	평등해짐	계	동일함	불평등해짐	평등해짐	계
6		321.82	322.09	314.59	317.49	300.78	346.51	314.49	317.49
7		330.16	320.25	312.02	316.57	286.12	348.73	314.39	316.57
8		315.61	412.01	297.36	324.45	322.82	430.52	300.29	324.45
9		319.69	366.80	337.70	341.44	338.33	392.46	327.91	341.44
10		272.25	396.73	324.36	331.17	335.45	353.64	325.15	331.17
11		350.07	359.68	337.15	343.61	344.74	378.48	335.88	343.61
12		391.57	337.75	342.54	348.99	395.20	419.56	322.48	348.99
13		455.08	341.77	356.18	368.29	458.83	448.06	319.12	368.29
14		438.52	349.49	351.82	363.52	430.46	461.14	314.28	363.52
15		440.58	317.74	298.22	325.53	369.42	444.53	279.36	325.53
16		312.06	345.44	293.38	309.09	328.99	466.23	268.87	309.09
17		330.08	350.63	274.66	300.34	383.63	432.57	254.79	300.34
계		302.24	312.30	273.66	286.20	312.70	357.17	262.96	286.20

[그림 3] 불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 (만 17세이하)



지금까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우리 사회는 대체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며, 둘째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은 부와 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소 복잡한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특히 모(母)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우리 사회가 더 불평등해졌다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경우 일정 연령 이상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와 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변화)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표 7> ~ <표 10>에 선형회귀분석과 성장곡선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 8>은 분석방법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사교육 지출액의 변화 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의 다차항을 포함한 회귀모형과 성장곡선 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경우 연령의 3차항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반면에 성장곡선 모형에서는 4차항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하의 모든 모형에서는 성장궤적을 추정하기 위한 연령의 고차항은 4차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8〉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지출)	Regression with Year Dummy				Growth-Curve Model			
	(1)	(2)	(3)	(4)	(5)	(6)	(7)	(8)
연령	7.412*** (0.593)	50.83*** (2.471)	65.10*** (6.438)	83.07*** (13.12)	12.76*** (0.840)	44.57*** (2.231)	68.19*** (4.971)	93.41*** (9.306)
연령*연령		-2.347*** (0.130)	-4.264*** (0.810)	-8.622*** (2.888)		-1.808*** (0.118)	-5.047*** (0.620)	-11.28*** (2.039)
연령*연령*연령			0.0706** (0.0294)	0.445* (0.240)			0.119*** (0.0223)	0.656*** (0.169)
연령*연령*연령*연령				-0.0105 (0.00667)				-0.0150*** (0.00467)
연도	YES	YES	YES	YES				
Constant	152.4*** (12.17)	7.160 (14.39)	-16.99 (17.56)	-35.21* (21.04)	130.9*** (7.323)	27.31*** (9.653)	-9.952 (11.97)	-33.79** (14.09)
Observations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Adj_R2 / Log likelihood	0.0605	0.0605	0.0605	0.0605	-55927	-55815	-55801	-55796
N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8354

주: \*\*\* p < 0.01, \*\* p < 0.05, \* p < 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표 9〉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 내 만 17세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연령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모형(3)과 모형(7)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나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나 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연령의 교호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연령에 따른 효과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모형(4)와 모형(8)에 제시하였다. 모형(4)와 모형(8)의 분석결과 역시 모형(3)과 모형(7)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구주 및 배우자의 불평등 인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지출)	Regression with Year Dummy				Growth-Curve Model			
	(1)	(2)	(3)	(4)	(5)	(6)	(7)	(8)
연령	86.43*** (11.73)	98.88*** (13.32)	100.5*** (13.65)	79.49*** (21.89)	94.81*** (9.136)	103.5*** (10.22)	106.2*** (10.68)	93.86*** (17.78)
연령*연령	-8.597*** (2.581)	-11.09*** (2.928)	-11.07*** (2.928)	-8.683** (4.309)	-10.79*** (2.006)	-12.19*** (2.252)	-12.17*** (2.253)	-10.58*** (3.445)
연령*연령*연령	0.456** (0.215)	0.670*** (0.244)	0.668*** (0.244)	0.556 (0.339)	0.611*** (0.167)	0.723*** (0.188)	0.721*** (0.188)	0.640** (0.271)
연령*연령*연령*연령	-0.0108* (0.00596)	-0.0168** (0.00680)	-0.0167** (0.00680)	-0.0130 (0.00912)	-0.0139*** (0.00461)	-0.0169*** (0.00523)	-0.0169*** (0.00523)	-0.0143** (0.00727)
가구주(부)의 불평등 인식		-8.355*** (2.478)	-6.976 (5.665)	-3.613 (6.638)		-5.158** (2.429)	-2.077 (5.146)	-4.982 (6.473)
가구주(부)의 불평등 인식*연령			-0.145 (0.518)	-1.016 (0.623)			-0.347 (0.508)	-0.494 (0.643)
배우자(모)의 불평등 인식		1.236 (2.605)	2.908 (6.004)	-2.337 (7.067)		2.035 (2.568)	3.512 (5.429)	5.309 (6.864)
배우자(모)의 불평등 인식*연령			-0.173 (0.549)	0.285 (0.659)			-0.174 (0.542)	-0.337 (0.684)
가구 가처분 소득	0.00356*** (0.000362)	0.00303*** (0.000376)	0.00303*** (0.000376)	0.00233*** (0.000374)	0.000640** (0.000271)	0.000459 (0.000281)	0.000463* (0.000281)	0.000322 (0.000282)

(사교육비 지출)	Regression with Year Dummy				Growth-Curve Model			
	(1)	(2)	(3)	(4)	(5)	(6)	(7)	(8)
충가구원수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가구주(부)의 교육수준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배우자(모)의 교육수준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가구주(부)의 경제활동상태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배우자(모)의 경제활동상태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175.2*** (31.43)	-234.1*** (63.55)	-249.3*** (69.63)	-211.6** (90.15)	-186.8*** (37.56)	-189.1*** (73.35)	-212.4*** (77.91)	-279.4*** (99.12)
Adj_R2 / Log likelihood	0.221	0.221	0.221	0.221	-55541	-46615	-46614	-38002
N(Number of Group)	8,354	6,981	6,981	5,687	8,354(1,929)	6,981(1,586)	6,981(1,586)	5687(1,422)

주: \*\*\* p < 0.01, \*\* p < 0.05, \* p < 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한편 <표 10>은 가구주나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변화가 없는 경우, 불평등한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인식한 경우, 평등한 방향으로 인식한 경우를 구분한 가변수(dummy)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sup>8)</sup> 모형(1)과 모형(2)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의 변화는 평등한 방향으로 인식 수준의 변화나 불평등한 방향으로 인식 수준의 변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연령과의 교호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연령의 변화에 따른 궤적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구주 및 배우자의 불평등 인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지출)	전체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
	(1)	(2)
가구주(부)의 불평등인식(불평등해집)	-7.388 (22.24)	-14.17 (27.50)
가구주(부)의 불평등인식(평등해집)	-30.42 (18.54)	-33.15 (23.37)
가구주(부)의 불평등인식(불평등해집)*연령	1.048 (2.038)	-0.0571 (2.597)
가구주(부)의 불평등인식(평등해집)*연령	2.240 (1.768)	2.430 (2.303)
배우자(모)의 불평등인식(불평등해집)	38.57 (24.26)	59.45** (29.33)
배우자(모)의 불평등인식(평등해집)	45.89** (19.53)	67.12*** (24.16)
배우자(모)의 불평등인식(불평등해집)*연령	-2.696 (2.250)	-4.343 (2.756)
배우자(모)의 불평등인식(평등해집)*연령	-5.049*** (1.826)	-7.474*** (2.321)
가구 가처분 소득	0.000557** (0.000272)	0.000418 (0.000280)
연령(1차항~4차항)	YES	YES
CONTROL	YES	YES
연도	YES	YES
Constant	-178.2*** (52.62)	-133.4* (73.13)
Log likelihood	-44806.825	-35081.572
N(Number of Group)	6,730(1,721)	5,250(1,471)

주: \*\*\* p < 0.01, \*\* p < 0.05, \* p < 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8)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은 복지인식 설문에 연속적으로 응답한 가구의 자녀만을 분석그이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가구주(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달리 배우자(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이 보다 불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한 배우자(모)의 자녀의 경우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액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사회적 불평등이 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배우자(모)의 자녀의 경우 연령과의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 수준에 대해 개선된 인식을 갖고 있는 모의 자녀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 4〉은 〈표 10〉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 궤적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4〉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모)의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교육비의 지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구주나 배우자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가구의 배우자(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학령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배우자(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변화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개인의 소득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불안감과 미래 기대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사교육비 지출행위가 미래에 대한 지위추구행태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인 수준에서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 궤적은 비선형적인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특히 보육단계 이후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정도까지 각 자녀에 사용되는 사교육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입학이후 학령기 기간 동안에는 증가폭이 다소 줄어드는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불평등 수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우리 사회가 소득과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대부분은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 자체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나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과 달리 부모의 각각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의 동태적 변화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부)와 달리 배우자(모)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변화가 보다 평등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학교 이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자체 보다는 부모들이 체감하는 사회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가구 구성원이 경험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의 복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 이동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구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구축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있어서 일부 이론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가구 소득이외의 어떤 요인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최상위 계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구 소득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액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은 그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결정요인과 관련된 외연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백승주, 2019) 물론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 심리학적 요인들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일부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구 형태를 중심으로 한 예산 제약이론에 기초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향후 가구내의 소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있어서 다양한 사회 심리학적 요인들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원인들이 발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금현섭, 백승주 (2014).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 145-175.
- 김대일 (2007),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30(3): 77-102.
- \_\_\_\_\_ (2015),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과 상호 연계」, 노동경제논집 38(2): 25-58.
- 김혜자 (2013). 「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1990-2012)」, 마르크스주의 연구 10(4): 45-66.
- 김희삼 (2009). 「교육격차와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 김희삼·이삼호 (2008). 「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의 선별」, 제9회 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박기백 (2017). 「소득소비불평등의 관계 및 소비불평등 분해」, 재정정책논집 19(3): 149-179.
- 박경호 외 (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2017-07
-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백승주 (2018), 「소비지출불평등의 추이 분석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2018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
- \_\_\_\_\_ (2019), 「교육비 지출의 변화와 격차 분석」, 2019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
- 이성립 (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59.
- 이소정 (2009).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 분석」, 사회복지연구 40(1): 235-260.
- 이승신 (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32.
- 임소현 외 (2018). 한국교육여론조사 2018, 한국교육개발원.
- 전승훈·신영인 (2009).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정순희 (2000).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 소비지출 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93-108
- 주인숙·양세적 (1997). 「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77-290.
- 차문정·이희태 (2017). 「소득불평등이 교육비 지출을 매개로 소비자의 행복한 삶,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영향: 예상된 세대간 계층 유동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20(3), 143-168.
- 최현석·박철용 (2018).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학업성취도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지 29(4), 937-953.
- 최희갑 (2003). 「불확실성하에서의 소비지출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9(1), 187-206.
- Duncan, T. E., Duncan, S. C. and Strycker, L. A. (2006).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ew Jersey.
- Lee, H. and Kang, S. (2013). Analysis of latent growth model using repeated measures ANOVA in the data from KYP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1409-1419.



- Hacker, J. S., Huber, G. A., Nichols, A., Rehm, P., Schlesinger, M., Valletta, R., & Craig, S. (2014). "The Economic Security Index: a New Measure for Research and Policy Analysi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0(S1): S5-S32.
- Sandom, A. (1970). "The Effects of Uncertainty on Saving Decis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37: 353-360.